
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도자료</b>		<b>경 재외동포청 추</b> <b>인천설치 확정!</b>
	배포일자	2023년 5월 30일(화) 총 2매	
담당 부서	해양환경과	담당자	이 동 호 ☎440-7891 김 보 경 ☎440-7893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, 강화 황산도 둘레길 연안 정화 나서**  
**- 바다의 날 맞아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나서 ... 어촌계원 등 70여 명 참여 -**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5월 30일 강화 황산도 둘레길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강화군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, 유관기관, 민간환경단체, 지역 어촌계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둘레길 해안에 밀려든 해양쓰레기와 육상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.

인천시는 지난해 영종도 및 옹진군 도서 지역 해안을 대상으로 약 3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·처리한 바 있다.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연안 정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제28회를 맞이하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정화 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” 며, “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지역 주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연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

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

인천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통해 기후 변화 및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16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